

# 2021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동향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 <요약>

2021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부문은 2년째 이어진 국경봉쇄로 인해 소비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 감소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국경봉쇄에 따른 중간재 수입 감소의 영향은 2020년에 상당 정도 반영되었고, 별다른 자연재해가 없었으며,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시작과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의 추진 등 정부 정책도 제한적이지만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년과 같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은 반복되지 않았으며,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중 육상무역 재개 등이 전망되는 2022년에는 산업 및 실물 부문이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인 위기 국면은 다소 완화될 수 있겠지만 북한경제에 지속적이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UN 대북 경제제제가 지속하는 한 북한경제 위기 국면의 근본적인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다.

## 1. 개관

2021년 북한의 산업과 실물경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첫해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던 기후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2020년에 이어 단기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국경봉쇄의 지속에 따른 대외무

역의 감소였다. 특히 소비와 생산을 위한 필수 물자의 수입이 전년에 이어 줄어들어 따라 수입 중간재를 가공하는 제조업 분야의 어려움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북한정부가 극단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사이에 경제적 취약성이 극대화된 2020년과는 달리, 2021년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새로운 5개년계획의 수행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원배분에 있어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확보한 자원을 농업과 건설 부문 그리고 이와 연관된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2021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경제는 2020년 수준에서 크게 후퇴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해와 홍수가 겹쳤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그 결과 농업, 광업 등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을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위축되었던 수산업도 제한적이지만 생산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직물이나 식품 원재료의 수입 감소가 지속하고 있어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2021년의 경우 지방 원재료의 조달과 재활용 및 재생 등을 통한 생산 확대를 위한 노력 등 정책적 요인은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UN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받은 중화학공업의 경우 생산 및 투자의 변화 요인은 별로 없었을 것이며, 기존 설비의 개보수와 보완에 치중한 전력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II. 2021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동향

### 1. 전력 및 광업

전력 공급량의 증감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에는 수력 발전량 이 강수량의 증가로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2021년의 경우 가뭄은 아니지만 전년보다는 강수량이 줄어들어 수력 발전량이 다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화력발전부문이 연료탄 공급 확대와 설비 가동률 제고 등의 노력에 의해 발전량이 다소 증가하여 수력발전의 감소를 상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sup> 2021년 12월

1) 수력을 통한 발전량 제고를 우선하고, 화력부문은 석탄 소비량 감소 등 효율성 제고를 주로 추진한 북한의 발전부문 정책방향을 고려하면 수력부문

말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전력부문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연중 내내 전년에 비해 전력 생산 증가 성과 보도의 양과 구체성이 줄어들었다는 점 등도 발전부문에 별다른 성과가 없음을 시사한다. 대북 경제제재와 국경봉쇄 등에 따른 설비투자의 어려움으로 전력부문에서 대규모 설비투자는 2021년에도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의 중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은 예년 수준으로 이루어졌지만, 2020년에 완공될 계획이었던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은 2022년에도 완공되지 못하였으며, 여타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건설 성과도 거의 없다.<sup>2)</sup> 화력발전부문에서도 주로 기존 설비의 개보수나 부분적인 설비 증설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수력발전부문도 수차 개조 등 발전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가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광업은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한 해였다. 2020년에는 최대 비철금속 생산 중심지인 단천지구를 비롯하여 금속광산들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산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석탄광산도 이보다는 덜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1년에는 설비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자연재해에 의한 생산 차질도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금속광업의 생산량이 다소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석탄 광업도 발전용 연료탄 공급 확대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에너지 난 등으로 석탄 수요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해상을 이용한 비공식적인 석탄의 대중국 수출도 전년에 비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건설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석회석 등 비금속 광물의 생산도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제조업

국경봉쇄의 지속으로 중간재의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는 등 생산 여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제조업의 생산도 전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가.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은 시멘트 등 건재부문을 제외하고는 생산이 증가할 요인이 거의 없지만 UN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의 발전량 감소와 화력부문의 발전량 증가 규모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신문』, 「인민경제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방」, 2021년 10월 16일).

2) 여량천3호발전소의 발전기 조립 정도가 중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요 성과인 것으로 보인다.

3) 2021년 말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농업과 건설부문의 성과만 강조되었는데, 석탄광업은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에서 2021년 경제계획의 조기 완수가 보도된 거의 유일한 산업 부문이다.

2021년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새로운 요인도 없었기 때문에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5년)이 금속과 화학소재의 생산능력 확충과 공급 확대를 가장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 계획의 첫해인 2021년에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생산 및 투자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7월 초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상반기 인민경제계획을 44% 초과 달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금속공업 화학공업도 3/4분기 까지 경제계획을 수행하였다고 노동신문 등에서 보도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철·제강 부분은 김책제철소 산소열법용광로의 기술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황해제철소와 천리마제강소를 중심으로 생산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평양의 1만세대 주택건설을 비롯하여 전국의 주택건설이 확대됨에 따라 철근 등 범용 철강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sup>4)</sup>

화학공업도 계획수행 보도가 반복되었지만 흥남비료와 남흥청년화학의 비료 생산실적을 제외하고는 생산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매우 적었다. 2020년에 완공된 순천인비료공장의 경우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한 번 있었지만, 이후 주로 정상적인 생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아직 정상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8차 당대회와 5개년계획에서 촉매 자급화가 요구된 것과 관련하여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주요 화학공장의 촉매 국산화를 위한 역량 개발 성과가 다수 보도되었다. 국경봉쇄의 지속으로 2020년에 비해 기초 화학제품의 수입이 감소한 것은 하류부문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5개년 계획이 금속과 화학 공업의 생산역량 확충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2021년 관련 분야 투자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철강재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핵심 투자사업은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의 새로운 산소열법용광로 건설인데, 2021년에 두 제철소의 신규 산소열법용광로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진척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산소열법용광로 건설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실제 건설 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건

설 진척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없었다.<sup>5)</sup> 노동신문은 10월 20일 ‘여러 철생산 기지에서 에네르기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습식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sup>6)</sup> 이는 적어도 10월 하순까지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공사가 설비의 제작 및 설치보다

4) 금속공업 부문이 시기별 경제계획을 완수했다는 보도가 반복되는 가운데, 기업 단위에서는 황해제철소와 천리마제강소의 생산성과가 많이 보도되었으며, 김책제철소의 경우 후반기 이후 생산 성과 보도의 빈도가 줄어들었다.

5) ‘노동신문’, 「정비전략, 보강전략 실현을 위한 투쟁 계속 전개」, 2021년 9월 7일.

는 콘크리트 골조 공사 등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거나, 용광로 등 핵심 설비를 건설할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UN 대북 경제 제재에 의해서 금속과 금속제품 그리고 기계류의 수입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 이 핵심 설비투자 사업의 진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 화학공업에서는 함흥비료연합기업소의 비료생산 능력 확충과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규모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을 핵심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함흥비료연합기업소의 비료생산 능력 확충 사업은 새로운 가스 발생기 건설이 완료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메탄올 공정 건설은 반복되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7)</sup> 2021년에 화학공업의 투자부문에 두드러진 보도 경향의 하나는 국내에서 조달되는 원료로 섬유를 생산하는 신의주화학섬유공장 등의 가동률 제고 및 생산 설비 확충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국경봉쇄로 섬유류의 수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학섬유, 즉 인건사나 같을 이용한 섬유의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5개년계획의 핵심 분야인 금속 및 화학 공업의 생산역량 확충 사업은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2021년 중에는 비료 생산 능력의 부분적 확충 정도를 제외하고는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금속소재의 수입 중단이 지속되고, 전반적인 설비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계공업의 생산이 늘어날 요인은 거의 없다. 다만, 2021년에는 새로운 선박의 건조, 중대형 수력발전소 및 대형 화학설비 건설용 설비의 제작<sup>8)</sup> 그리고 농기계 완성품 및 부품의 공급 확대 노력 등으로 생산활동이 전년도 수준은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 1만호 건설 등 주택건설 활성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멘트부문에 대한 투자와 생산도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상원세멘트나 순천세멘트공장 등은 생산 및 투자 성과가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들에 속한다. 그런데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각 시군에 1만톤의 시멘트를 공급한다는 약속은 2021년에는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9)</sup>

## 나. 경공업

경공업은 2021년에도 중간재 수입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어서 생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UN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공업은 수입 규제품목이 아닌 섬유, 화학, 식품

6) 『노동신문』, 「당의 정비전략, 보강전략 실현을 위한 분발」, 2021년 10월 20일.

7)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 사업은 2020년에도 적지 않게 보도되었는데, 이 때에도 주로 핵심 설비 이외의 골조공사 등에 관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8)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함흥비료연합기업소의 비료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를, 대안중기계에서 중대형 발전 설비를 제작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동 설비의 제작이 완료되고, 건설 현장에 공급되었다는 보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노동신문』,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보내줄 대상설비 생산에 총력 집중」, 2021년 8월 29일).

9) 북한은 2021년 9월에 새롭게 제정된 시군발전법에 대한 해설기사에서 지방공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의 하나로 시멘트 1만톤 공급을 언급하였으며, 제4차 전원회의 등에서 농촌 현대화 등을 언급하면서 시군에 시멘트 1만톤 공급을 반드시 실행할 것으로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21년에는 시군별로 1만톤 시멘트 공급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의 수입을 통하여 어느 정도 생산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이들 품목의 수입도 큰 폭으로 줄어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경공업의 생산감소는 2020년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 마이너스 4.5% 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화학공업의 경공업 원부자재 공급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부자재의 수입 감소는 수입 중간재 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 부문의 생산 여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특히 2020년에 수입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식품가공용 원재료의 수입이 2021년에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함에 따라 북한의 식품가공산업은 전년에 이어 다시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조섬유나 플라스틱의 수입 감소도 전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어 의류나 생활용품 등의 생산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표 1> 북한의 주요 경공업 원자재의 대중수입 추이

(단위: 천달러,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10
인조섬유 (HS54+HS55)	258,226(20.4)	298,485(15.6)	191,519(-35.8)	245,725(28.3)	27,463(-88.9)	11,764(-57.1)
플라스틱제품(HS39)	204,533(21.7)	231,388(13.1)	221,772(-4.2)	274,547(23.8)	31,341(-87.0)	25,028(-30.0)
밀가루(HS1101)	2,535(-55.1)	32,623(1,186.7)	63,046(93.3)	48,178(3.0)	35,478(-51.5)	0(-100.0)
당류 및 설탕(HS17)	3,779(-32.0)	38,655(922.9)	40,009(3.5)	24,913(44.1)	32,490(-26.8)	3,731(-88.5)
콩기름(HS1507)	98,110(-5.6)	111,442(13.6)	135,633(21.7)	74,527(-9.5)	65,835(-46.4)	5,943(-91.0)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검색일: 2022년 1월 17일).

그런데 식품원재료를 제외한 중간재의 수입은 이미 2020년에 크게 줄어서 2021년의 추가적인 수입 감소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초 소비재 생산과 공급 역할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북한정부의 정책기조는 2021년 북한 경공업의 생산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정부는 소비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 당류와 식용유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탕수수 등 '당작물'과 '기름작물'의 자체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등 지방 차원에서의 중간재 자급률 제고를 통한 경공업 소재 공급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시군발전법을 제정하여 지방정부에 기초식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초 소비재 공급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에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인 원자재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8.3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기초 소비재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원 재활용 및 재생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는데, 2021년 경공업 생산성과 관련 보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파수지 등을 재활용하여 소비재를 생산한 성과에 관한

것이였다. 이러한 소재의 국산화와 자원 재활용 및 재생을 통한 경공업 원부자재의 공급 확대 노력은 수입 중간재의 공급 감소의 영향을 부분적으로는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원재료의 수입 감소가 가장 컸던 식품가공업을 제외한 섬유·의류나 생활용품 등의 업종에서는 생산이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공업 전반적으로는 생산이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2020년과 같은 큰 폭의 생산 감소는 반복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러한 경공업의 생산 유지는 소비재 질의 하락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즉, 파수지나 파고무 등을 단순 재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또한 수입 설탕이나 당류를 대체하여 국산 물엿 등으로 제조한 식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예견된 것이였다.<sup>10)</sup>

### 3. 건설업 및 서비스업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건설업은 2021년에 북한에서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업종으로 평가된다. 북한정부가 평양 1만세대 주택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수해 피해를 입은 검덕지구나 삼지연 3단계 등 전국에서 상당한 주택이 신규로 건설되거나 개보수되었다. 반면, 단천발전소나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메탄올 생산공정, 그리고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 등 신규 생산설비의 건설은 전년에 이어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산설비 건설을 위해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대북 경제제재와 국경봉쇄로 조달이 어려운 금속 및 기계설비 등이 필요하지만, 주택건설에 있어서는 시멘트 등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자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평양 1만세대 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였으며, 연내에 1만호 건설을 완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주도의 이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은 국경봉쇄에 따른 중간재 수입감소에 의한 경기 하강을 부분적으로나마 상쇄하는 효과를 거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의 주택건설은 평양의 고급 주택보다 수입 건설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도 적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된 가운데에서도 집중적으로 추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주택건설 성과를 근거로 북한은 12월 말에 개최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농업과 함께 건설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년보다 후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경봉쇄가 2년째 지속되고,

10) 이와 관련하여 노동신문 등에서는 단순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의 질 저하를 비판하면서 진정한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달성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식품 완제품과 중간재의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산이 이를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상업·유통, 물류, 수송, 창고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위축 상황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원재료나 자원 재활용과 재생을 통한 필수 소비재의 생산 및 공급이 경공업 정책의 핵심이 됨에 따라 소비재의 전국 유통은 위축되고 지역 내 유통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을 것인데, 이 역시 서비스업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을 위한 이동 및 소득 감소에 따라 음식, 숙박을 비롯한 개인서비스도 더욱 위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III. 평가 및 전망

2021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문은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경제제재와 국경봉쇄의 지속에 따라 북한의 실물부문이 개선될 요소가 거의 없었지만, 국경봉쇄에 따른 중간재 수입 감소의 영향은 2020년에 상당 정도 반영되었고, 별다른 자연재해가 없었으며, 새로운 5개년계획의 시작과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의 추진 등 정부정책이 제한적이나마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두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년과 같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은 반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광업은 태풍 피해 복구가 완료된 금속광업과 대중 비공식 수출이 재개되거나 늘어난 석탄광업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수량이 전년보다는 줄어서 수력발전량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연료탄 공급 증가 등으로 화력발전소가 이를 상쇄하여 전체 발전량은 전년도 수준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금속 및 화학, 기계 등 중화학공업은 대내외 조건이 전년과 거의 유사하여 전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공업은 중간재 수입 감소가 지속되었지만, 식품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수입 규모가 2020년에 이미 크게 줄어들었으며, 중간재 수입 감소를 내부 원자재 공급 확대와 자원 재활용 및 재생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상쇄한 것으로 보여 제품 질의 하락은 피할 수 없었지만 생산 감소폭은 전년보다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 1만호 주택건설 및 검덕지구 등 지방의 주택건설 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건설업은 전년에 이어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의 감소와 이동의 감소 등으로 서비스업의 위축은 2021년에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21년 7월 초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상반기 경제계획을 44% 초과 수행하였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생산이 25% 증가하였다고 선전하고, 이후에도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를 통하여 10월까지 분기별, 월별로 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고 반복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2021년 12월 말에 개최된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는 농업과 건설 부문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을 뿐 2021년 경제계획의 완수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2022년 1월에도 2021년 경제계획의 완수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연간 계획의 완수에 대한 보도가 없는 것이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든, 전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계획의 완수가 큰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것이든 새로운 5개년계획 첫 해의 성과에 대한 전원회의의 평가나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의 보도 경향은 북한정부가 2021년 북한경제가 농업과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정부는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 해인 2021년에는 본격적인 설비투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생산 확대보다는 기존 설비의 개보수, 현대화와 업종 및 공정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5개년계획 추진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UN 대북 경제제재와 국경봉쇄로 금속 및 기계류의 수입 중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정부는 제4차 전원회의에서 금속과 화학, 전력 등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해서 생산 및 투자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세우지 못하고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모호한 평가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정부는 제재와 봉쇄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전력 및 중화학공업 등 전략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즉각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농업과 단기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한 건설업 부문에 자원을 집중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한적이거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북한경제의 개선 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지속되고 있는 국경봉쇄의 해제와 북중 육상무역의 재개 및 그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UN 대북 경제제재의 지속이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의 극적인 전환이 없다면 UN 대북 경제제재의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큰 폭의 변화는 어렵겠지만 2022년의 북한경제는 2021년에 비해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북중 육로무역이 제한적이지만 재개되면, UN 대북 경제제재 대상이 아닌 중간재의 수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식품가공이나 섬유류 그리고 생활용품 등 내수용 경공업의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임가공 의류의 비공식적인 수출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하반기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북중간 관광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북한 서비스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1월 16일 북중간 철도 무역이 재개되었는데, 이것만으로는 2022년 북중 육상무역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육상무역이 재개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방역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상황이 악화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북중무역은 북한 중앙정부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무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민간이 주도하는 소규모 비공식 무역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sup>11)</sup> 중국이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었음을 선언하고, 북한정부 역시 백신 접종이나 글로벌 팬데믹 종식을 확인한 이후에나 이전과 같은 제한 없는 국경무역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정책 기조는 2021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농업이 가장 강조될 것이며, 건설업은 경기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북한이 2021년에 시군발전법을 제정하고, 2021년 말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농촌 개발을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평양시의 주택건설을 지속하는 동시에 전국의 군 단위의 중소규모 건설을 중심으로 건설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농촌 개발은 지방정부 주도의 중소규모 인프라와 농촌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평양 1만호 주택건설이 중앙정부 주도로 내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추진한 사업이라면, 2022년에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국내에서 주요 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중소규모 건설활동을 농촌 개발이라는 취지하에 전면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에 약속하였지만 지켜지지 못한 시군별 1만톤 시멘트 공급 약속 이행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상무역의 재개 등으로 대중무역이 다소 증가한다면, 금속과 화학 부문의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속과 화학소재의 공급 능력 확충이 필수적인데, 2021년에 성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화학공업에 대해서 경공업과 의약품 원자재 공급을 확대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주목을 끈다. 이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들 원자재가 국경봉쇄로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주민에 대한 생활필수품 및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화학공업이 이를 위한 중간재 공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정부는 대외경제관계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화학공업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북한경제가 2022년에 코로나19에 의해서 촉발된 위기로부터 다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1) 당분간 북중 철도를 통한 무역은 중국에서 철도를 통하여 들어온 화물이 안주에 설치된 대규모 방역센터에서 방역을 거친 이후에 북한 전역으로 수송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중간 공식·비공식 무역에 대한 북한정부의 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 그것이 북한경제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중 육상무역의 재개 등에 따라 북한경제가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UN 대북 경제제재에 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류와 전자제품 등 자본재의 수입이 계속 억제되는 한 북한경제의 질적 약화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단기간에 무연탄이나 봉제의류 등 수출이 통제되는 품목을 대체할, 통제되지 않는 수출품을 육성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재와 중간재의 수입 여력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UN 대북 경제제재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중국에는 중국과의 공식·비공식 무역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외화의 규모가 북한의 수입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이는 북한경제 규모의 상당한 축소를 의미한다.

## 참고문헌

『노동신문』,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보내줄 대상설비 생산에 총력 집중」, 2021년 8월 29일.

『노동신문』, 「정비전략, 보강전략 실현을 위한 투쟁 계속 전개」, 2021년 9월 7일.

『노동신문』, 「인민경제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발」, 2021년 10월 16일.

『노동신문』, 「당의 정비전략, 보강전략 실현을 위한 분발」, 2021년 10월 20일.

한국무역협회(<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검색일: 2022년 1월 17일).